

## 중독자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에서 재활지도실장을 맡고 있는 박영덕 씨는 약물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한다.

박영덕 씨는 14세에 처음 본드를 접했다.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겠지만 그의 호기심은 선을 넘어버렸다. 17세에 유흥가에서 일하며 동료에게 받은 필로폰까지 손을 댔다. 마약을 시작한 대가는 혹독했다. 충동을 멈출 수 없었던 그는 교도소와 정신병원을 들락거렸다. 마약을 구하기 위해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 급기야 자살 시도까지 했다.

“나는 너의 죽은 모습을 이미 수없이 보았다”는 어머니의 절박하고 무서운 충고에도 박영덕 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어머니 앞에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혈서를 쓰며 끊겠다는 다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흘도 안 돼 마약에 다시 손댔다. 대부분의 사람이 앞으로 사회생활은 힘들 것이라 했다. 본인조차도 한때 자신의 삶 자체를 포기했었다.

### 마약 절대 혼자서 끊을 수 없다

“25년간 마약을 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마약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악독한 중독성도 문제이지만 개인의 통상적인 사회생활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게다가 마약으로 한번 삶이 무너지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2002년, 마약을 정말로 끊어보려고 다짐한 박영덕 씨는 제 발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덕분에 몇 달간 마약을 참을 수 있었지만, 막상 퇴원을 앞두고 사회로 복귀하려니 다시 마약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송천쉼터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입소를 결심했습니다. 1년간 그곳에서 숙식하며 마약을 끊기 위한 재활 교육과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송천쉼터에서 생활하며 그는 마약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다. 누구보다 마약을 끊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졌던 그는 여러 교육을 성실히 받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지속했다.

1년이 지나고 퇴소를 앞두던 박영덕 씨에게 송천쉼터의 담당자는 입소자를 관리하는 생활지도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담당자는 박영덕 씨가 앞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게다가 박영덕 씨 스스로 오랜 기간 마약 중독의 늪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터라 입소자를 보다 잘 이해하고 보살피고 이끌어 나

갈 것이라 판단했다.

“송천키퍼의 생활지도사 생활을 7년간 했습니다. 입소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절로 마약 생각을 떨치게 되더라고요”라고 말하는 박영덕 씨는 한 번이라도 손대면 절대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 마약이라고 강조했다.

“외부의 전문적인 규제와 감독이 없다면 무수한 치료와 재발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재활의 희망을 버리고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죠. 한마디로 영영 마약중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지를 전한다

현재 박영덕 씨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의 재활지도실장을 맡고 있다. 주로 다양한 약물 중독자를 만나서 그들의 고충을 듣는 일을 한다. 직접 그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오는 이도 있지만, 대다수가 전화로 상담한다. 그렇다 보니 밤늦은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전화벨이 울린다.

그 외에도 중독자가 직업 훈련을 받도록 지원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다. 전국의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마약사범을 찾아 본인의 회복사례 강의를 진행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마약중독자 자조모임을 만들어 약물을 끊고자 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박영덕 씨는 몇 개의 몸이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낸다. 가족과 함께 쉬어본 날도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럼에도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은 중독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절실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중독성도 문제이지만 개인의 사회생활까지 무너뜨리기에 마약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박영덕 씨는 강조한다.

마약 관련 사항을 묻는 각종 언론 매체의 취재 역시 마다하지 않는다. 마약의 부작용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다. 이때마다 박영덕 씨는 자신의 본명과 얼굴 모두 숨기지 않고 인터뷰에 응한다.

“마약의 문제성을 확실하게 알리고, 말 한마디에 신뢰를 주려다 보니 미디어 인터뷰에도 얼굴과 실명을 숨기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나쁘게 살아온 저 자신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박영덕 씨가 인터뷰를 거부한 적도 있다. 언론 매체에서 마약을 구하는 장소, 방법과 같은 자극적인 소재만을 문의했던 경우다. 마약에 대한 지나친 묘사는 실제 마약을 거래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더욱이 언론 매체를 보고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아산재단의 아산상 복지실천상 수상 소식을 들은 박영덕 씨의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보였다. 쉽 없이 달려온 박영덕 씨를 누군가 인정해줬다는 고마움에서다. 반면 당사자였던 박영덕 씨는 오히려 덤덤했다. 지금도 자신이 아산상에 걸맞는 사람인지 되돌아본다. 그럴 때마다 수많은 마약 중독자가 평범한 삶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어딜 가서 저 스스로 소개할 때 아직도 중독자라고 합니다.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마약은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혹여 마약에 손을 댔다가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25년간 죽은 사람과 다름없던 제가 마약을 끊어 19년간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박영덕을 찾으십시오.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글 편집부